



안전운전을 위한 마음 자세가 중요

• 운전면허란?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생활의 일정한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남의 권리를 해치려고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운전에서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자동차는 육상운송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커다란 역할을 도맡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산업활동에 까지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단히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편리한 문명의 이기인 반면에 속도라는 큰 위력을 지니고 있어 그 사용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달리는 흉기"라는 비유처럼 대단

히 높은 위험성을 함께 갖고 있다.

이러한 속도의 위험성때문에 운전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교통규칙을 모르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지극히 경계하는 것이고 운전적성과 운전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운전을 허용해줄 필요가 대두되게 된다.

그래서 치안본부는 운전의 적성과 능력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달한 사람에게만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 자동차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였다. 이것이 곧 운전면허제도이다.

• 운전자의 사회적 책임

운전면허를 받으면 자동차를 도

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운전을 인정받은 운전자는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교통규칙을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해야 한다.

이밖에 운전자는 정해진 자동차 검사를 받고 또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 동시에 운전자로서 필연적인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운전자는 이러한 책임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로부터 기대되고 신뢰받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이 사회의 기대와 신뢰에 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비난을 받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교통사고(위반)를 일으킨 운전자의 세가지 책임

(1) 형사상의 책임

교통사고나 속도위반 같은 교통

위반이 있으면 형사상의 책임을 묻게된다. 이것은 국가의 형벌로서 법원에서 행한다.

(2) 행정상의 책임

운전면허제도는 원래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일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운전을 허가한다는 제도이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신병과 같은 심신에 장애가 생기거나 교통위반이나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자동차의 안전한 운전이 이상이 있는 등의 여건이 생긴 경우 운전을 허가한 치안본부로서는 그대로 운전을 인정할 이유가 없게 된다.

이와같은 경우 치안본부는 도로상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고 아울러 운전자에 대하여 위반이나 사고에 대한 반성과 자각을 촉구하고 또 다시 안전한 운전자로서의 능력을 회복케 할 기회를 주기위하여 일단 교부된 면허증을 취소하거나 면허효력을 일정기간 정지시키게 된다. 이것이 행정처분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행정처분은 오로지 교통의 안전을 위한다는 행정상의 필요에서 행하여지므로 교통위반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데 대한 제재로서 취하는 벌금이나 징역같은 형사처분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또 교통위반이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재 점수제도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

(3) 민사상의 책임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케 한 경우,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부합된 보상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형사상, 행정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한 배상의 책임도 져야한

다. 손해배상은 금전의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가치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고 설령 금전적으로 보상을 한다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되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상당한 신체는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복귀되지는 않는다. 생명의 가치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불충분한 보상에 지나지 않는다.

손해배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운전자여러분은 충분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 안전운전에 대한 마음의 자세

운전자는 교통규칙을 지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핸들을 잡으면 절대 사고를 내지않는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운전중에는 그때 그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기상변화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사태에 대비하여 항상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운전을 해야한다. 이러한 운전태도를 안전운전이라 한다.

현재와 같이 자동차나 사람으로 붐비는 도로위에서 단 한사람이라도 사소한 법을 무시하거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운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통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교통을 문란케하는 행위, 사고들을 근절시켜 나가야 하겠다.

운전자는 「한번 잘못하면 곧바로 인명을 앗아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핸들을 잡는 순간부터 운전에만 주

의력을 집중하고 자신의 능력 전부를 기울여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에서 자신을 물론 다른 사람도 지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 존중되어야 할 인명

인명은 만물에 우선하여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귀중한 인명이 운전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절망으로 내동댕이 쳐지게 된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매일 수십명의 귀중한 인명이 사라지는 것파 이로 인해 육친을 빼앗긴 사람들의 슬픔을 생각해보자. 당신의 자녀가, 부모가, 형제가, 그리고 당신이 교통사고의 희생물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운전해야 할 것이다.

운전이란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아울러 타인과의 연관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고, 운전도중 만나는 사람은 모두 자기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해 가자. 그렇게하면 핸들을 꺾는 방법도, 엑셀을 밟은 방법도, 크랙션을 누르는 태도도 원만하게 되어 기분좋은 운전을 하게 될 것이다. ☺



김 영 민

〈교통신문사 연구위원〉